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東守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5-9551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2-5895
☎ 967-8133 사무실

會員權益 보호 自救策 힘써야

우리는 生藥材生産을 指導管理하면서 販促을 도와 會員 相互間의 共生共存的 所得을 증대시키는데 最善을 다해야 할 것이다.

生藥材의 出荷段階까지는 分明한 農産物이다

農産物은 제값을 받기위하여 잘손질(건조·단절·포장등)되어야 한다

往往 우리 주변에서는 生藥材 出荷過程에서 한약을 취급하였다는 애매모호한 법적해석 때문에 단속에 걸려 本意아니게 被害를 보는 事例가 發生하고 있다. 現實的으로 生藥材를 生産하여 원형그대로 생것을 내다 팔수는 없다. 모처럼 몇년 걸려서 生産한 生藥을 제값을 받지못하고 내다 버릴수는 없을 뿐더러 需要側에서 받아주지 않고 기피하는 까닭에 모든 生産者는 收穫과 同時에 세척을 한後 잘 말리기 위해서 절단을 하고 良品을 선별하여 포장한후 出荷하게 되는것이 通例的인 生藥材의 出荷過程이다. 뿐만아니라 한방약의 원리는 한의사의 진맥에 따라 2개品種이상의 生藥材를 複合하여 조제하였을경우에 藥事에 저촉되는 한약取扱行爲라고 할수있다.

이러하므로 일찍부터 保社當局에서는 生産농민이 生藥材를 生産하여 손질한후 出荷하는 것은 藥事단속에서 제외한다라는 有權해석을 本會에 通報한바 있었고、또한 포장하여 出荷하는 單一品種에 의한 效과효능이 表示되지 않았을 때는 이를 韓藥이라 할수 없음으로 適切히 取扱하여 出荷하여야 한다라는 해석이 本會 會員에게 通報된 바 있었다.

이와같은 有權해석이 數次에 걸쳐 示達된바 있음에도 不拘하고 下部기관에서는 약사단속과정에서 원형대로가 아니고 건조·단절하였기 때문에 한약을 取扱하였다고 간주 法的조치를 取하는 例가 흔히 發生되고 있다. 이를 항거하므로서 官民間에 마찰이 생기고 離和感을 造成하는 결과를 낳게하고 있다.

모든 農産物이 그러하듯이 生産하면 部分的 加工을 하여 되도록이면 좋은 商品을 消費者에게 내어놓고 제값을 받고자 希望한다. 生藥材인들 農産物外의 것은 아니다. 많은 生藥材가 건강食品 또는 酒類등으로 利用되고、빠른 時日內에 건조하지 않으면 부패 또는 변질되기 때문에 必然的으로 건조를 서둘러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절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길경、사삼등과 같은 생것으로도 반찬이나 안주로 먹을수 있는것 외에는 모두가 절단하여 잘 건조시킨후 묶음이나·포장·짝으로 하여 出荷하게 된다 우리는 이와같은 農産物을 取扱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와같은 일로 藥事단속 과정에 적발이 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경우는 아무리 弱者便에 속하는 우리들이지만 一致團結하여 問題해결을 위해 모든 措置를 강구하도록 힘써나가야 할것이다.

최근에 本會로서는 國會 監査院、농림수산부등에 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건의서를 제출해 놓고 그 반응과 결과를 期待하는 바 있기 때문에 各級 分事務所나 會員들께서는 차후에도 上記한바와 같은 하자가 發生하였을 경우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에 노력할 것이며 自體해결이 不可能할 경우는 지체없이 中央에 報告하여 이로인한 被害가 없도록 強力히 對處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편집부 제공〉

人事發令

〈任〉

「新規承認」

경기도 평택군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김성오 88년8월9일부
충남 대천시 사무소장 심관섭 88년8월1일부
충남 공주시 사무소장 이계년 88년8월1일부
전남 구례군 공판장장 (사무소장겸직) 정일영 88년8월19일부

'88秋季 파종에 즈음하여

新規會員및 初心者를 위하여…

종자、종묘、종근 선택시 유의사항

1、기후에 알맞는 품종을 택할것

모든 농작물이 기후에따라 그 발육이 좌우되고있으나 약초 재배는 더욱 기후에 민감하다。따뜻한 기후에 적합한 맥문동、제충국、디기탈리스등은 서늘한 기후인 고냉지역에서는 재배할수 없으며 이와 반대로 서늘한 기후에 적합한 토당귀、토천궁、대황、만삼 등은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할수 없는 것이 그 일례라 하겠다。

2、토질에 맞는 품종을 택할것

좋은 재배품종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질에 적합치 않으면 안된다。토질에는 사질토、사질양토、양토、점질토로 크게 구분하여 사질토에는 향부자、원방풍、자원등을、사질양토에는 종자 경엽 과실을수확하는 약초를、양토에는 근부를 수확하는 패모、부자 지황、원황정、산약등 비교적 다비성 약초가 적합하며 특히 양토 습지에는 일천궁、백지를 재배하는 것이 좋다。

메마른 토지에는 구기자 백편두、결명자、소회향등이 적지라고 할수 있다。그리고 약초를 재배하는 토질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3、건재시세를 보고 택하지 말것

약초의 건재시세는 항상 유동적이므로 현재시세가 고가라하여 그 품종을 택하여서는 안된다。건재가격은 일정한 상품과는 대조적으로 고시된 가격은 아니다。

다만 수입약재를 제외한 재배된 약초의 가격은 생산량과 수요량의 차로 인하여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다시 말해서 수요공급의 차로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수출의 전망、국내의 수요량、수확에 소요되는 년도、재배상의 난이 종묘생산의 수량、번식력、재배분포 및 면적등을 종분히 검토하여 품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4、4∼5품종 이상을 택하여 재배할 것

약초는 비교적 시세변동이 많은 것이므로 1∼2종류를 재배하여 그 종류의 시세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폭락이 되면 경제파탄이 올 염려도 있음으로 적어도 4∼5종류 이상을 재배하여 의외로 시세가 하락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반면에 올라간 것이 있을 것임으로 전체적인 수지타산은 항상 맞출수 있게 건실한 재배 경영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5、종자、종근、선택을 잘 할것

약초재배의 성패는 재배기술관리에도 문제는 있으나 종자、종근의 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용식물의 종자、종근 생산이 극히 적으며 품종개량 사업이 등한시 되고 있을뿐만아니라 불충실하고 불량한 종자가 범람하고 있는가하면 비양심적인 일부상인들이 과장된 허위 선전으로 선량한 농민은 물론 약초재배 초심자들에게 폭리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발아불능의 묵은 종자까지도 판매하여 약초재배 농가로 하여금 많은 손해를 입게한 실례가 허다한 바 있었다。이러한 점에서 몇가지 약초종자 선택방법을 다음에 예시한다。

㉠지도관이나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문의하도록 함이 좋다。

㉡모래、잡초종자、기형종자등 기타 잡종이 혼합되지 않은 청결한 종자를 판별 택해야 한다。

㉢미숙 또는 과숙되지 않고 충실하고 풍만한 완숙된 종자를 판별 택해야 한다。

㉣품종에 따라 채종 모주의 년도와 순정도를 알고 구입하여야 한다。

㉤품종의 확실성을 알고 택해야 한다。

예:

- 천궁에는 일천궁과토천궁
- 당귀에는 일당귀와 토당귀
- 의이인에는 외피가 두꺼운 것과 얇은 것
- 소엽에는 자소엽과 청소엽
- 지황에는 뿌리가 굵은 개량종과 가늘고 길게 드는 재래종
- 택사는 안택과 율택
- 감초에는 원감과 미감

이와같이 약초종자、종근의 선택이 중요시 되고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앞으로 약용식물을 재배함에 있어서도 시급히 육종개량사업을 통하여 우량종자 종근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건전한 모주에서 순계분리법에 의한 채종포가 요망되고 있다。

6、파종기를 잘 알아서 심을것

일반 농작물과 같이 약초에도 파종기가 각각 다르다。추기에는 목단、작약 원방풍、토당귀、강활、토천궁、패모、부자、오미자등을 식재하며 극히 발아율이 좋지 못한 시호·사삼등은 춘기보다는 늦은 가을에 파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택사는 6월경에 파종하였다가 이식하는등 파종기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유념하여야 한다。

7、수확과 조제

약초는 품종에 따라 수확년도도 다르다。형개는 개화가 되어 반결실이 되었을때가 수확 적기이고 토당귀、강활등은 1년간 생육을 억제하는 방법에 의한 육모를 본포지에 정식하여 그해 가을을 2년생을 수확하며 일당귀 백지등은 충분한 비배관리로서 당년수확을 하는데 다같이 화경이 올라오면 근부가 본질화되어 약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것이 된다。

또한 조제방법도 다양하다。황기는 거피황기와 거피를 하지않는 황기가 있는가 하면 토목향은 묘두를 종근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은 발 뿌리를 붙여서 쪼개어야 상품가치가 있으며 대황은 이와 반대로 썰어말리면 제값을 받을수 없는 등 수확 조제에도 전문가의 지도와 자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8、생산약재의 판로

우리나라에서 건재매매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재배및 채약자가 중간상인이나 건재상회 또는 건재약업사에 직판 또는 위탁판매하며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다시 중개인들의 손을 빌어 각 제약회사 무역회사 한의원、한약방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재배자나 채약자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폐단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당협회의 기본기능중의 일부라고 할수 있겠다。그럼으로 약초재배농가、회원제현께서는 재배하기에 앞서 판로에 우선유념하시고 앞으로 최대의 봉사정신을 지침으로 하고 있는 지방각군 사무소나 협회 건재공판장을 많이 활용하여 주실수 있다면 유통체계에도 점차 정립되어 갈것이며 아울러 생산자제현의 손실도 감소되어 갈 것이다。

(慶) 1988 (祝)
서울올림픽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회장 송경태
부회장 임연학
부회장 박재문
이사 박만종
이사 배명철
이사 김동균
이사 이화익
이사 이옥용
이사 이종철
이사 문대규
이사 김정만
이사 박길부
이사 김용한
이사 황인구
이사 이웅환
이사 전만택
이사 민종권
이사 김창한
이사 신영달
이사 서종활
감사 박영임
감사 류복규

1988년 9월 17일